



고통에 대하여



작년 가을, 생애 첫 한라산 등반 때의 일이다. 제주에 가기 전부터 허리가 살짝 아팠는데 집 싸고 나르고 공항과 비행기에서 장시간 앉아있으면서 허리 통증이 순식간에 악화되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터라 남편은 지레 겁을 먹고 당장 약국에 가서 복대를 구매하라고 성화였다. 결국 나는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복대를 구매했고 복대를 두른 채 한라산을 완주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허리 통증이 마치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다. 발목, 종아리와 발바닥 등이 너무 아파서 솔직히 허리의 불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하산한 이후에도 며칠은 근육통에 시달려 제대로 걸지도 못했는데 또 어느 시점이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통증이 괜찮아졌다.

더 신기한 일도 있다. 지난주에 유방암 3기로 현재 항암 치료 중인 친구 P를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머리가 속절없이 빠지기 시작해서 중고거래 앱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가발을 구매했다며 쓰고 나왔다. 다소 낯설어 보이긴 했지만 얼굴이 작고 이목구비가 예쁜 친구라 가발이 잘 어울리는 편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P의 알레르기 비염이 걱정되어 “요즘 비염은 좀 어때? 아직도 약 먹어야 하나?” 하고 물었더니 “아니 비염 완전히 없어졌어.” 라는 것이 아닌가? 원래 이 친구는 평생 비염으로 고생을 했고 알레르기 시즌에는 아예 약을 달고 사는 데다가 이 때문에 후각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비염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하니 고통도 더 큰 고통 앞에서는 힘없고 고개를 숙이는 게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고통은 어떻게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까? 어디 공식화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울이나 자로 잴 수도 없으니 말이다. 단번에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단연 현재 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을까 싶다. 아무리 과거 구사일생의 고통이 깊다 한들 지금 당장 내 오장육부가 불편한 것만큼 시급한 것이 또 있겠는가?

3월 말에 제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소지품을 쟁기다가 왼손 검지손가락을 다쳤다. 굵긴 줄 알았는데 살이 둥글게 쪽하고 파여 있었다. 출혈도 없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집에 돌아와서 약을 바르고 밴드에이드를 하고 잤다. 살짝 육신거리기는 했지만 이삼일 지나니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딱지가 생기는 듯하여 따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쯤 되었을 때부터 더 심하게 육신거리어서 들여다보니 살짝 덧나고 있는 듯 보였다. 다시 약을 바르고 밴드에이드를 붙이기 시작했다. 손가락이라 계속 손에 물을 묻혀서 그런지 쉽게 아물지 않고 점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결국 피부과를 방문했고 의사는 상처 안으로 염증이 깊어진 것 같으며 항생제를 처방해 주었다(다행히 지금은 상처가 많이 호전된 상태임).

정말 뭐 대단한 상처도 아니고 손가락에 좁쌀만 한 상처 따위가 어찌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지 설거지할 때마다 왼쪽 검지손가락으로 접시를 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아파서 미간이 찌푸려졌다.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할 때도 검지 손가락을 추켜올리고 최대한 닿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야만 했다. 아니 이게 뭐라

고 이렇게 쭈시고 아픈단 말인가? 임신과 출산, 모유수유와 잠 못 드는 육아를 네 차례나 경험해서 웬만한 고통은 그럭저럭 잘 참아낼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좁쌀만 하고 실낱같은 상처 따위에 아프다며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결국 병원에 가고 항생제까지 먹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영화 ‘파더 스튜(FATHER STU)’, 한국어로는 ‘신부가 된 복서’에서 온갖 역경과 시련을 마주해야 했던 주인공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쉬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려운 삶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나는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혼자서 소심한 꾸밈을 해보지만 내가 직시하는 세상은 금쪽같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 잃은 부모로 살아야 하는 삶이다. 내가 과연 파더 스튜처럼 겸허히 운명을 받아들이고 것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자신은 없다. 그렇다고 더 강한 인간이 될 수도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순탄치 않은 운명에 아픔과 상처, 고뇌를 거듭하며 조금은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 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무엇이든 맡겨 주십시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바이어 보조프로그램 다운페이 & 클로징 코스트

- 01 \$10,000 DOWNPAYMENT ASSISTANCE
 - 02 \$7,500 CLOSING COST CREDIT
 - 03 GOVERNMENT ASSISTANCE UP TO \$140,000
- 지금 전화주세요! > 아이비 714.904.1202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